

2005년 6월 9일 (목)  
보도자료  
정치부, 사회부 기자

■ 마음을 같이하고 함께 참여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경기복지시민연대**  
www.kgwelfare.or.kr

수원시 영통구 매탄2동 102-30 화이트빌 4층 전화:031-215-4399 전송:031-215-4395 e-mail: kgwelfare@hanmail.net  
담당자: 허윤범 (019-699-0219)

**보도자료**

**경기복지시민연대 복지예산참여운동 선포**

- 2005년 복지예산참여운동 본격적으로 시작
- 지방이양 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및 대책 요구
- 비효율적, 낭비성 예산 수정 요구 계획
- 경기도민이 바라는 복지예산 편성 요구

경기복지시민연대는 지난 2003년, 2004년에 이어 올해에도 복지예산참여운동을 전개한다. 동 사업은 경기도의 복지예산에 대한 철저한 분석에 기초하여 도민의 욕구에 근거한 복지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운동으로서 복지부분에 있어서의 도민의 예산감시와 예산참여라고 하는 복지예산참여운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선 예산감시의 주요 내용으로서는 복지예산에 대한 분석을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일회성, 낭비성, 행사성 예산들을 집중 분석할 예정이며, 예산집행의 문제는 없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도민들은 물론 일선의 사회복지현장종사자들로부터 의견을 접수하는 신고센터를 개설할 예정이다. 즉 예산집행의 구체적 문제점들을 밝히기 위해서 전화 또는 이메일, 방문접수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관련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직접적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모아낼 것이다.(전화: 031-215-4399, 이메일주소: kgwelfare@hanmail.net)

또한 작년 이후로 사회복지계의 가장 큰 이슈인 국고보조금의 분권교부세로의 전환과 관련한 지방이양 사업에 대한 예산 모니터링을 철저히 할 것이다.

사회복지예산 이외에도 대표적인 낭비성, 문제성 예산은 없는지를 검토할 예정이고, 특히 영어 마을사업이나 세계평화축제와 같이 수 천 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면서도 자칫 단순 이벤트성 행사로 전락할 수 있는 사업예산에 대해서 철저히 감시할 것이다.

다음으로, 예산참여운동은 이러한 예산감시운동의 내용을 근거로 경기도민이 바라는 복지예산 편성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각 팀별로 자체분석을 한 후, 관련 단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경기도민이 바라는 복지예산안을 편성할 것이다. 또한, 경기도 복지예산에 대한 전문가 집단들을 대상으로 질적 조사를 할 예정이며, 일반 도민을 상대로는 경기도 복지예산에 대한 만족도 및 욕구조사를 할 예정이다.

현재 경기복지시민연대는 필요한 자료를 확보한 상태이며, 일부 자료는 경기도에 행정정보공개청구를 요구한 상태이다. 또한 동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총괄팀, 조사팀, 빈곤팀, 아동팀, 청소년팀, 노인팀, 장애인팀 등 7개팀 14명의 복지예산팀을 구성해 놓은 상태이다.

시기별 계획으로는 6월 경에 복지예산 분석을 할 예정이며, 7월과 8월에 걸쳐 복지예산 요구안을 작성할 것이다. 이를 근거로 경기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도민의 요구사항을 개선할 예정이다. 9월 이후에는 예산편성 단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경기도의 복지예산 편성절차에 대한 감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얼마 전, 선계획 후예산이라고 하는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계획적 예산 편성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이는 작년에도 시행한다고 하였다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바 있다. 이러한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경기도는 시민들의 의견수렴에 무엇보다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고, 적극적 정보 제공 및 각 종 노력들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경기복지시민연대는 이러한 복지예산참여운동을 통해 9개 광역 도(道) 중, 최하위인 1인당 사회보장비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이며, 경기도가 실질적이고 가시적으로 도민참여를 통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개입하여 경기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05년 6월 9일

**경 / 기 / 복 / 지 / 시 / 민 / 연 / 대**